

광주·전남 드러나지 않은 마약사범 많다

식약처, 하수처리장 마약류 역학 조사

'마약 청정지역'로 꼽히던 광주·전남지역이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2020~2023년)간 광주·전남 하수처리장의 하수를 분석한 결과 마약성분 검출량이 전국 하수처리장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마약류 복용자의 분변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마약사범의 암수(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9일 식약처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정은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주관한 하수역학 연구팀이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하수처리장을

목포 엑스터시 검출량 '전국 최고'...광주 '암페타민' 전국 2위 코로나 이후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영향...코카인은 검출 안돼

선정해 시료를 채취했다.

시료를 통해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등의 사용추정량을 조사했다. 사용추정량은 하수처리장의 마약류 농도를 통해 해당지역의 주민 1000명 당 1일 사용량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하수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이유로 투약자가 배출한 대소변과 하수도에 버려진 마약류를 꼽는다.

조사결과 광주·전남에서는 일부 마약류 검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광주지역 암페타민 검출량은 4년 평균 29.43mg

으로 충북 청주시(41.28mg)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검출됐다.

암페타민은 우울증과 파킨슨병, 비만증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의약품이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남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지난 2021년에는 광주지역 하수에서 61.69mg의 암페타민이 검출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이 나왔다. 필로폰의 경우 2020년 5.62mg, 2021년 10.81mg, 2022년 7.55mg, 2023년 4.78mg으로 매년 검출됐다.

엑스터시는 2020년 검출되지 않았지만 2021년

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확인(평균 0.67mg)됐다.

전남에서는 엑스터시 검출량이 많았다.

엑스터시는 암페타민 계열 유기 화합물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이다.

지난 2020년 목포에서 엑스터시 검출량은 17.18mg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 울산, 전북 등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목포와 경기도 시화(15.28mg)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2021년에는 전남 모든 지역에서 엑스터시 하수 검출량이 0mg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에는 2.75mg, 2023년에는 0.69mg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등의 영향으로도 풀이된다.

엑스터시는 동남아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약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여행과 계절노동자 등이 차단돼 외국인 유입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목포지역에서 많이 검출된데에는 영암대불산 단 등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근 4년간 광주·전남에서는 코카인이 검출되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코카인은 남아메리카에서 코카 나무 잎을 추출해 만드는 마약으로, 동남아지역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광주·전남에서는 사용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코카인이 많이 검출된 지역은 경기 시화, 인천 등이다.

강미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 상담실장은 "마약은 호기심 또는 권유에 의해, 본인도 모르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스스로 중독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어르신 시원한 여름 채비
연일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광주 임동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한 경로당에서 북구청직원들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쿨스카프와 부채 등을 나눠주고 냉방기 작동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명분없는 제3자 변제, 자원 부족 당연”

강제동원시민모임 지적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지원재단(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실소가 나왔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을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29일 성명을 통해 “재단이 자원부족을 이유로 기부금 출연을 호소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1년여 지난 상황에서 재단이 벌써 파산선고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120억원이 더 필요한데, 현재 남은 돈은

3억여원에 불과하다”며 “한국과 일본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사법정의를 거스른 당연한 결과”라며 “위법하고 명분도 없는 기부금 출연에 동참해달라고 하면 되겠다”고 반문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정부가 ‘우리가 먼저 물결의 반을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알아서 뒤집어 써놓고는 아직도 일본 기업에 구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국인 시민모임 이사장은 “강제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지급이라도 법원 판결대로 일본 피고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을 이행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

다도해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다음달 21일까지 출입 통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정비공사로 인해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국립공원 사무소는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완도 구계등 자연관찰로 및 정도리 제 2주차장 등 구간에 대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입통제는 '2024 다도해해상 소안·청산 지구 정비공사'로 인한 것이다.

노후된 보도블럭으로 요철이 많아 관람객들의 보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공단은 탐방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재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통제 구간 우회를 위해선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생명자원센터 방향과 다도해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방향으로 가면 된다. 해변길 통제는 이뤄지지 않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증거 압수 현금 3400만원 빼돌린 완도경찰 파면 조치

경찰서 증거물보관실에서 압수된 현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파면됐다.

29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도박 사건의 압수 증거물인 현금을 훔친 혐의로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됐다.

A 경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통합증거물보관실에 보관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경위는 총 14차례에 걸쳐 총 34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 등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자 등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같은 날 불문경고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

날씨 예보 더 정확해진다...영광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 개소

영광군 안마도에 개소한 해양기상관측기지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기상청은 영광군 안마도에 설립된 해양기상관측기지가 지난 23일 개소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는 서해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으로 접근하는 대설·황사·호우 등 위험기상을 더 빠르게 탐지함으로써 기상 재해를 사전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는 흑산도·백령도 관측

소, 북격렬비도·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에 이어 다섯번째로 설립된 서해 관측시설이다.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하기 때문에 위험기상 현상이 서해를 통해 들어오는 만큼 서해상의 조밀하고 입체적인 관측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육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안마도에 해양기상관측기지가 들어서면서 서해상 관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는 35km 이상 상층의 대기 상태를 직접 관측하는 고층기상관측용 자동발

사장치, 원격으로 8km까지 연속적인 바람을 관측하는 고고도 연직바람관측장비 등 첨단 장비가 설치됐다.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을 통해 서해상에서 호남 지역으로 들어오는 황사를 1~2시간 전에 관측한다. 대설과 호우 등 기상 재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028년까지 서해에 기상관측망 1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앞으로 서해 관측망을 계속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